

〔十七〕 삼도(충청·경상)에서 사학을 다스림 〔三道治邪〕

충청감사 조 기영(趙冀永)의 계본(啓本) :

“이 시자(李時鎡 : 이 가환(李家)의 손자)는 본래 흉악한 종자로서, 그의 남매가 함께 사학에 물들었고, 부부가 공범으로 온 가족을 이끌어다 사교의 무리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정(鄭)여인은 이 시자의 아내요, 이(李)여인은 그의 누이동생인데 이 두 여자도 공범(共犯)이었습니다.”

형조(刑曹)에서 회계(回啓)하기를 :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하여 자백을 받아서 장계를 올리게 하라.”

금백(錦伯 : 충청감사)의 계본(啓本) :

“이 시자는 사학을 버리겠다고 맹서하여 회개하는 진정(眞情)을 나타내는 것 같고, 정 여인과 이 여인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형조의 회계 :

“모두 엄중히 가두어 그들이 전날의 잘못을 깨히 버린 후에야 다시 장계를 올리도록 도백에게 분부하라.”

이 시자는 진천(鎭川) 감옥 옆에 집을 짓고, 의술(醫術)을 행하였다고 한다.

임 치영(林致永) 등 12명도 또한 모두 가두고 회개하는 것을 살폈다.

을사년(1785)에 나라에서 금지한 이후로 사학에 물들었던 자들은 비록 겉으로는 회개하여 주상 앞에서 맹서를 하였으나 속으로는 한결같이 미혹되어 있었으니, 양반 가운데 이 승훈·정 약용같은 자나 민간의 최 필공(崔必恭)·이 존창(李存昌) 같은 자가 이러한 자들이다.

신유년(1801)에 사학도(邪學徒)를 징계한 이후로 그들의 자손들이 모두 사학을 신봉(信奉)하여 죽기를 맹서코 다른 뜻이 없으니, 이 승훈의 아들 이 기원(李起元)과 홍 낙민(洪樂敏)의 아들 홍 재영(洪梓樂)·손자 봉주(鳳周)·달주(達周)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요즘 한 쪽에서 지

극히 억울한 사람은 이 가환·이 기양(李基讓)이라고 말하나, 이 가환과 이 기양이 혹시 원통하게 죽었다면, 그 자손들이 반드시 사학을 원수같이 여겨서 배척하고 피할 것이로되, 이 가환의 손자 이 시자와 이 기양의 손자 이 의창(李宜昌)은 또다시 사학을 배워서 들어냄이 이처럼 뚜렷하다. 저 두 집안 자손들은 저희 조상이 신성한 학문(神聖之學)을 하여서 죽도록 절의(節義)를 지켜 천당에 올라갔다고 인정하는 까닭에 저들도 죽도록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시자와 이 의창이 사학에 빠져 있음을 보면, 이 가환과 이 기양의 죽음도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에 마땅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라감사 이 목연(李穆淵)의 장계 :

“홍 재영(洪梓榮 : 홍낙민(洪樂民)의 아들)은 가만히 사학의 무리들과 결탁하고 내통하여, 온 가족이 물들었고 백성들도 그르쳤습니다. 오 예종(吳禮宗)과 이(李)·최(崔)·김(金)·심(沈) 등 네 여자에게서도 모두 자백을 받았읍니다.

홍 봉주·홍 달주(홍 재영(洪梓榮)의 두 아들)와 김 갑득(金甲得) 등 남녀 36 명의 죄수도 죄의 경중을 따라 처벌해 주소서.”

형조의 회계 :

“장계대로 윤희(允許)하셨습니다.”

강원감사 홍 치규(洪稚圭)의 장계 :

“최 해성(崔海成)은 법대로 처단케 하소서.”

형조의 회계 :

“장계대로 윤희하셨습니다.”

이 군선(李君先) 등 6명은 도피하였다.

1. 척사윤음〔斥邪綸音〕⁴⁾

〈헌종(憲宗) 5년(1839) 10월 18일〉

내각(內閣 : 규장각(奎章閣)) 제학(提學) 조 인영(趙寅永)이 지어 올림.

주상계읍서 말씀하시기를 :

4) 척사윤음(斥邪綸音) : 사학(邪學)을 배척하는 임금님의 말씀.

“오호라! 중용(中庸)에서는 ‘하늘[天]이 명(命)한 것을 성품[性]이라 한다’ 하였고, 상서(尙書)에서는 ‘황상제(皇上帝)께서 올바름[衷]을 세상 백성들에게 내리시어, 변함없는 성품[恒性]을 갖도록 하신다’ 하였으니, 그 한 가지 근본을 부여하는 처음을 논하여 하늘이라 하고, 상제라 하는데, 하늘은 형체(形體)를 말하는 것이고, 상제는 주재를 말하는 것이다. 명(命)이라 하고 올바름을 내린다(降衷)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듭거듭 말로 일러 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이(理)가 발(發)함에 두 가지 기(氣)가 갈라지고, 네 계절이 운행함에 만물이 자라난다. 사람이 이것을 얻어서 성품[性]으로 삼는데 그 덕(德)이 네 가지가 있으니, 인(仁)·의(義)·예(禮)·지(智)이다. 인륜(人倫)이 다섯 가지 있으니,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이다. 이것은 모두 당연하게 그러한 것으로 적절히 배설하거나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못백성을 내심에, 사물이 있고 법칙이 있다’ 하였으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하늘에 거역하는 것이다. 대저 하늘을 받들고 상제를 섬기는 것이 어찌 사단(四端 : 인·의·치·지) 과 오륜(五倫) 밖에 있는 것이리오?

오호라! 일찌기 복희(伏羲)·신농(神農)·요(堯)·순(舜)으로부터 하늘을 계승하여 중심을 세우니,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조심하여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일 따름이다. 또한 우리 공부자(孔夫子)께서 요순(堯舜)을 본받고 문·무(文武·武王)의 법도를 따른 후로 송(宋)나라의 모든 현인(賢人)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사람의 마음을 탐게 한 것도 이것일 뿐이니라. 터럭만큼 어그러지드라도 이단(異端)이라고 하겠는데, 하물며 음흉하고 허황하며 기괴(奇怪)하고 바르지 못한 외도(外道)에 있어서라! 나라에 정상(正常)한 형법(刑法)이 있다면 반드시 죽여 용서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형벌로써 간사한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니라. 오호라! 우리나라는 문명한 지방으로 어진이의 교화를 받아서 아름다운 풍속과 착한 교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 되었도다. 거룩하신 우리 성조(聖祖 : 인 태조(李太)를 가리킴)께서 천명을 받으시어 나라를 세우셨고, 인륜(人倫)을 밝혀 기강(紀綱)을 세우셨으며, 도학(道學)을 숭상하여 나라 풍속을 바로 잡았도다. 그후 자손된 역대 제왕(諸王)이 조심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위로 하늘을 크게 잘 받들어 아름다운 운(運)이 길이 뻗치니 명현(名賢)들이 많이 났도다. 위로는 공경(公卿) 대부(大

夫)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공자의 행실을 따르고, 정·주(程子·朱子)의 글을 읽어서 남자는 충성과 효도로 근본을 삼고, 여자는 정절(貞節)을 중히 여기며, 관혼상제(冠婚喪祭)는 반드시 예절을 따르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은 각기 그 생업(生業)을 다하여 오늘날에 이르도록 서로 바로잡아 살았으니 나라가 여기에 힘입었도다.

오로지 우리 정종대왕(正宗大王)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여러 왕의 계통을 이어서 문물제도를 찬란하게 갖추셨는데, 불행히도 흉적(凶賊) 이 승훈이란 자가 서양의 책을 구입하여 천주학이라 하니, 선왕(先王)의 법도(法度)가 아닌데도 몰래 서로 띄우고, 성인(聖人)의 정도(正道)가 아닌데도 길들여 현혹시켜 오랑캐와 짐승의 지경에까지 끌어 넣었도다. 그래서 정종대왕께서 사학이 오래 갈수록 더욱 성(盛)해갈 것을 근심하셔서, 그 괴수는 다스리나 그 나머지는 용서하여 살리고자 하는 덕을 베풀어서 스스로 새로와질 길을 열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더 후할 수가 없으며, 그 덕이 더 성대할 수가 없도다. 비록 돼지나 물고기의 미련함과 올빼미와 노루의 흉악함을 가진 자라도 또한 감동하여 깨달음이 있겠거늘, 이 사도(邪徒)들은 본래의 성품을 이미 잃었고, 오랜 습관을 고치지 못하여 결국 신유년(1801) 사도(邪徒)를 토벌하는 옥사에까지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도다. 약간 재주가 있는 자는 그 새로움을 좋아하여 선동하고, 무식한 자는 그 허탄함을 좋아하여 좃으니 몸이 대신의 벼슬에 있는 자도 스스로 당파를 만들었고, 시(詩)와 예(禮)가 전해오는 집안도 또한 물들었도다. 주 문모(周文謨)는 변장(變裝)을 하고 도시에 돌아다녔으며, 황사영(黃嗣永)은 백서(帛書)를 써서 외국 선박을 부르려 하였으니, 흉악한 음모와 반역의 절차가 이에 급박하였느니라. 진실로 우리 순종대왕(純宗大王)과 정순대비(貞純大妃)께서 그들의 도깨비 장난을 잘 살피서 큰 토벌의 위엄으로 모조리 섬멸치 아니하였던들 나라의 나라됨과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오호라! 지금 신유년(1801)을 지난 지 40년에, 금법(禁法)이 점점 소홀하여져 사교가 다시 성하여지니 요물(妖物)들이 그림자를 감추고, 늑대와 가라지가 모습을 바꾸듯 성명을 바꾸어 출몰하고, 요망스러운 통역이 재화(財貨)를 실어 나르며, 몰래 서양인들을 끌어들이기를 여러 차례 하여, 다른 나라와 의사를 소통하고 같은 패들과 교류하여 신유년보다 더욱 심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소자(小子: 현종(憲宗) 자는 삼가 황조(皇祖)는 이 태조(李太祖))

를^립가^킵의 법을 따르고, 자성(慈聖 : 순원(純元) 왕후)의 명을 받들어 하늘의 별을 감히 시행하지 않을 수 없노라. 비록 혼비(昏迷)한 자라 깨우쳐 주지 못하고, 빠져 들어가는 자를 건져주지 못하며, 연좌(連坐)로 큰 살륙을 일으키게 되니, 백성의 부모된 나로서 어찌 애처럽고 딱한 마음이 심중(心中)에 솟아나지 않으랴? 오호라! 내가 듣건데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은 백성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라 하였으니, 내 마땅히 사교의 근원을 조목에 따라 분석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와 온나라의 남녀에게 널리 고하노니 각각 깨달아서 조심하도록 할지어다.

오호라! 저들 천주학자가 말하기를: ‘이 도학(道學)은 하늘을 공경하며 하늘을 존송한다’ 하는데, 하늘은 진실로 공경하고 존송할 것이로되, 저들이 공경하고 존송한다는 것은 죄를 면하고 복과 은총을 맞이하려고 하는 비루한 일에 불과하니, 결국 스스로 하늘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데로 돌아갔도다. 우리가 공경하고 존송하는 바는 곧 이른바 사단(四端)과 오륜으로 천명을 순종하고 왕명을 순종하여 나날의 일이 이치에 합당하였도다. 사교와 정도의 분별은 두말할 것이 없도다.

또한 저 야소(耶蘇)라는 자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도다. 그 무리들의 말로는 처음에 천주로서 내려왔다가 죽은 후에 올라가서 천주가 되어서 만물과 인류의 큰 부모가 되었다고 하나, 하늘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거니와, 사람은 육신이 있으니, 결단코 서로 혼동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하늘이 내려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것은 현혹시킴이 이토록 거짓될 수 있으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옛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오호라! 아버가 없으면 어디서 나며, 어미가 없으면 어떻게 길러지겠는가? 저들은 나를 낳은 이는 육신의 부모가 되고 천주는 영혼의 부모가 된다 하며 친애하고 존송함은 천주에게 있고 부모에 있지 않다 하여 스스로 부모를 끊으니, 이것이 과연 핏줄의 인륜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것이라?

제사의 예절은 조상을 추모하여 근본에 보답하는 것인데, 효자가 차마 그 부모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이치와 인간의 정이가 당연히 그러한 것이니라. 그런데 저들은 신주(神主)를 부수고 제사를 폐지하면서 죽은 자는 알 바가 없다고 하니, 이렇다면 저들의 이른바 영혼은 어디에 의지하는 것인가? 머리와 꼬리가 따로 떨어져서 순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로다. 호랑이와 이리는 흉악한 짐승이로되 오히려 아버지와 자식

의 정(情)이 있고, 승냥이와 수달은 미물(微物)이로되, 오히려 제사의 의리가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런 짐승만도 못 하니, 사람으로서 양심이 없음이 이토록 심할 수 있으랴?

오호라!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천지간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저들은 교황(敎皇)과 교주(敎主)로 호칭(號稱)하니, 오랑캐의 추장(酋長)과 도적의 괴수가 백성을 다스리는 권리를 빼으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교화가 닿을 데가 없고 명령이 베풀어질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니, 재앙의 시초와 어지러움의 근본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있으랴?

오호라! 음양(陰陽)이 있으면 반드시 부부(夫婦)가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이치어늘, 저들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서 망녕되어 정덕(貞德)을 핑계하고, 그 낮은 층은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살아 풍속과 교화를 어지럽히니, 앞의 것에 말미암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요, 뒤의 것에 말미암으면 인륜이 흐려질 것이니라.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이 이 지경이니 부부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도다.

그리고 성모(聖母) 신손(神孫: 하느님의 아들, 곧 예수를 가리킴.), 영세(領洗), 견진(堅振) 등 가지가지 명목(名目)으로 현혹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여우가 울리는 것이나, 무당이나 부적(符籙), 주문(呪文) 등이 세상을 속이는 것과 같으니라. 약간이라도 식견이 있으면 어찌 현혹될 수 있겠는가? 그 중에서도 천당 지옥의 설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니, 이것은 바로 불교의 진부한 이야기이로다. 옛사람들이 이미 남김없이 변론하여 새삼스럽게 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누가 보고 전한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하여 허황한 것이로다.

저들도 또한 꼭같이 천성(天性)을 받은 인류인데 오륜을 버리고 삼강을 끊고서 죽은 뒤에 황홀하고 아득한 경지에서 복을 구하고자 함이 너무 미혹된 것이 아닌가? 복을 구하는 길이 따로이 있는지라, 시경에 이르기를: ‘천명(天命)에 합하는 것을 오래도록 생각함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공경하는 군자는 복을 구하되 사사롭게 아니 한다’ 하였느니라, 천명에 합한다는 것은 이치와 합하는 것이요, 사사롭게 아니 한다는 것은 간사한 행동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복이 스스로 이르고, 이렇게 아니 하면 복을 구하려 해도 도리어 화를 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로다. 내가 듣건데 야소의 죽음이 가장 흉악하였으니, 그 학문이 복이 되고 화가 됨을 이에서 증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보면 징계하여야 할 것이 어늘 형틀에서 죽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칼이나 톱과 형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술에 취한듯 미친듯 깨달을 줄 모르니 미련한 것이 아니면 망녕된 것이로다. 애석하고 슬프도다.

이것이 만일 광명정대한 교라 할진데 하필 어두운 밤에 밀실(密室)에서 강론을 들으며, 깊은 산이나 궁벽한 골짜기에 모여서, 타락하고 불량한 자들과 자포자기(自暴自棄)하여 나라를 원망하는 자들과,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와 남의 재물을 사기(詐欺)하고 음란을 일삼는 무리들이 서로 교우(敎友)라 부르면서 각각 사호(邪號)를 칭하고, 숨겨가며 한 패거리를 이루고 있겠는가? 이런 형적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요사함을 알겠으며, 그들의 계책을 궁구해 보면 황건적(黃巾賊)이나 백련교(白蓮敎)가 하는 짓에 불과한 것이로다.

저들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즐기며, 이 나라에서 먹고 자는 자들이 아니냐? 이 나라의 풍속은 사단(四端)을 확충(擴充)시키고, 오륜(五倫)을 확립시켜, 조상들이 이를 좃았으며, 스승과 벗이 이를 본받아서 모두 이에 근거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 나라의 공통된 넓고 바른길을 버리고서 만리 밖의 다른 나라 사교에 미혹되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건가?

오호라! 점차로 빠져들어 고질화된 자와 조사하여 죄상이 들어난 자는 이미 다 처벌되었으나, 미처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멍치고 어떻게 뻘어 나가는지 알 수가 없도다. 죽은 자는 구제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 있는 자는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니, 저들도 모두 나의 백성일진데 그들이 심히 미혹되어 가게 그대로 두고 어두운 데를 벗어나 밝은 데로 향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생각지 않겠는가? 지금 내가 마음 속을 털어놓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이며, 인류의 법칙인 옛 여러 성인의 교훈인 것이다. 가없도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아, 조심하고 조심할지이다. 아버가 자식을 가르치고 형이 아우를 이끄는데, 그릇된 자는 바르게 인도할 것이며, 아직 빠지지 않은 자는 권고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며, 타일러도 끝내 좃지 않는 자는 반드시 소탕시켜서 징계하여 이런 무리들이 다시 용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맹자의 말씀에: ‘경(經)이 바르면 백성이 흥성(興盛)하고, 백성이 흥성하면 사특함이 없어지리라’ 하였으니, 지금의 도리는 행실을 두터이하여 효도와 우애와 충성과 신의를 닦고, 학문에 힘써서 시경과 서경과 주역과 예기를 익힐

것이며, 방종하여 옛성인의 법을 어기지 말고, 줌스러운 데 치우쳐서 선현(先賢)의 교훈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여 우리 선비와 관리들이 순수하게 한결같이 하늘의 덕과 윤리인 자연의 법칙을 좇는다면 우리의 도학은 저절로 북돋아지고 이단(異端)의 사학은 저절로 물러갈 것이며, 저들은 감동하여 스스로 분발하고 경계하여 스스로 뉘우치며 사특함을 버리고正道(正道)로 돌아오는 이치가 아니리오? 오호라! 서경에: ‘백성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이라’ 하였으니, 지금 사교가 퍼지는 것은 내가 어두워서 잘 인도하지 못한 허물로서, 내 몸을 돌이켜 자책(自責)하니 어찌 아픔이 내 몸에만 있을 뿐이라? 너희들이 춥고, 덥고, 굶주리고 배부른 것을 생각할 때에 나 또한 밤낮으로 걱정되지 않음이 없으니, 그것은 너희들 성명(性命)에 관계되는 것과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유지하여 사람과 짐승의 한계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니, 내 어찌 거듭거듭 말하라? 애통하여서 고유(告諭)하노라.”

2. 병오년, 서양 선박(船舶) 사건

병오(1846: 현종(憲宗) 12년) 5월 11일. 전지(傳旨)하시기를:

“황해감사(金鼎集)의 장계를 보니 큰 변괴로다. 기해년(1839)에 사도를 다스린 지 오래지 않은데 또 이런 외국 사람이 숨어 들어왔다는 것(숨어들어온 사람으로 김 대건(金大建)이 황해도에서 체포됨.)은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끌어 들이고 맞아들인 무리들이 있을 것이니, 엄중히 조사하여 묘당(廟堂)에서 처리 방안을 조속히 품의(稟議)하도록 하라.”

6월 23일 비변사(備邊司)의 장계:

“충청수사(忠淸水使) 정택선(鄭宅善)의 장계를 보건데, 홍주목(洪州牧) 외연도(外烟島)의 주민들이 한 작은 상자와 한지(韓紙) 한 장을 가져와서 말하기를 외국 선박이 본 섬 앞바다에 와서 상자를 주었다 하며, 그 종이는 저들이 섬의 주민들과 문답한 말이라 합니다. 문정관(問情官)⁵⁾인 목사 서승순(徐承淳)과 수우후(水虞侯)⁶⁾ 김원희(金遠喜)를 파직하고 구속(拘束)하여, 후임자를 빨리 교대시켜 주십시오. 사실 내용을 갖추어 지금으

5) 문정관(問情官): 외국배가 항구에 들어왔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파견된 관리.

6) 수우후(水虞侯): 수사영(水使營)의 한 관직 이름.

로 장계를 올리나이다.”

7월 25일 차대(次對)에 영의정(領議政) 권 돈인(權敦仁)의 장계 :

“김 대건(金大建)은 사교(邪教)를 전파시킨 죄와 나라를 배반한 법률로 목을 베어 매달아서 대중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주상께서 윤허하셨다.

기찰하고 체포하는 일을 태만히 하였다 하여 두 포도청장(捕盜廳將)을 파직시켰다. <죄인 이 재용(李在容)을 체포하지 못한 까닭이다.>

7월 29일 비변사의 장계 :

“포도청에 갇혀 있는 죄수 현 석문(玄錫文)은 신유년(1801)에 처형 당한 자의 자식(현 계흠(玄啓欽)의 아들)이며, 기해년(1839)에 망명(亡命)하였던 사적으로서, 성명을 바꾸고(이 재용(李在容)으로 변경하였음.) 경향 각지로 돌아다니며, 사교를 전파하였습니다. 김 대건(金大建)을 당초에 사주(使賚)하여 외국에 보냈던 일과 몇 해 전에 변장하고 변경(邊境)의 관문을 나갔던 일을 그가 모두 자백하였으니, 마땅히 모반의 법률로 김 대건의 경우와 같이 목베어 매달고, 그 나머지 죄수들은 포도청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치하도록 하소서.”

주상께서 윤허하셨다.

3. 홍주(洪州) 외연도(外烟島) 백성이 이상한 선박의 사람들과 한 문답

“당신의 배는 어느 나라, 어느 고장의 것인가?”

“이 배는 대 프랑스(佛朗西)국의 것으로 황명(皇命)을 받들어 인도(印度 : 서양사람은 대륙을 가리켜 5인도라 하였음)의 각 지방과 중국으로 가는 3척의 배로서 그 중 가운데 배 위에 원수대인(元帥大人)⁷⁾이 계시는데 당신네 고려국에 들려서 일을 알아보려고 한다.”

“무슨 일인가?”

“원수(元帥)께서 한 통 문서를 당신네 나라 영의정[輔相]께 보내려 한

7) 원수대인(元帥大人) : 동양함대(東洋艦隊)사령관인 세실(Cécile)을 가리킴.

다. 만약 실수하여 전달되지 아니하면 후일에 당신네 고려국에 반드시 큰 화(禍)가 있을 것이다.”

“이 섬은 아득한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관청이 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로 통하기가 극히 어렵다.”

“여기로부터 관청이 과히 멀지 않으니 자연 왕래가 있어서 이 문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각 서울에까지 도착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즉각 회답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년에 따로히 군함이 와서 문서를 접수하겠 다.”

그리고는 곧 돛을 올리고 떠났다.

4. 고려 보상대인(輔相大人 : 영의정(領議政)에 이르게 씌어 있었음.) 에 이르게 씌어 있었음.)

“대 프랑스국 수사제독(水使提督)은 황명을 받들어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대 원수(水戰船 元帥) 세실(瑟西爾, Cécile)은 무고한 사람을 문죄하여 피해입힌 일을 살펴 알고자 합니다. 기해년(1839)년 8월 14일 일찌기 프랑스 사람 앙베르(安默爾, Imbert), 샤흐탕(阿斯當, Chastan) 모방(慕印, Maubant) 세 분은 우리나라에서 덕망이 높은 선비인데, 뜻밖에 고려국에서 살해되었다 하니, 본관은 동양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는 직책에 있는 지라 여기까지 와서 따져 묻는 바입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기에 그와같은 참혹한 죽음을 받았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고려의 국법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하고 있는데 저들 세 사람이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살해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본관이 살펴 보건데, 비록 중국인이거나, 만주인이거나, 일본인이 고려국의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보호되어 국경 밖으로 돌려 보내지며,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 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찌하여 저들 세 사람을 중국인, 만주인, 일본인과 같이 대우하여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고려의 무거운 짐을 지신 대감은 대 프랑스 황제의 어진 덕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같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비록 고향을 떠나 몇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황제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은덕(恩德)을 한 가지로 받게 하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우리 황제는 높은 은혜를 널리

펴서 그 국민을 천하 만국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죄를 저질러 살인이나 방화(放火)하는 것같은 폐해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심사하여 벌을 주어도 말할 바가 없사오나, 그들이 죄도 없이 학살되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 프랑스 황제를 크게 모욕하여 원한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일입니다. 무릇 본관이 묻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어진 선비 세 사람이 고려에서 살해된 사정입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대감께서 곧 이에 대답하지 못할 것같으므로 이 뜻을 우선 알려드리고, 내년에 우리 군함이 특히 이 일로 다시 나올 터이니, 귀국은 그 때 회답하여 주어도 좋습니다. 본관은 다시 대감께 우리나라의 황제가 그 국민을 보호하는 어진 덕이 있음을 아뢰고 밝혀서 귀국에 통보하오니,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나라 국민을 학살하는 일이 있으면, 고려국은 반드시 큰 재해(災害)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위로는 귀국의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대신 백관(百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허물을 타인에게 돌릴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스스로의 불인(不仁)과 불의(不義)와 무례(無禮)를 원망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오로지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구세주(救世主) 1846년 5월 8일

이듬 해 정미년(1847) 봄에 프랑스 선박이라고 자칭하는 두 척의 배가 전라도 변산(邊山) 북쪽에 와 닿았는데, 한 척은 좌초(坐礁)되어 부서지고 한 척은 간단히 사정만을 묻고 식량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배는 작년에 편지를 보냈던 일은 묻지 아니하였다.

5. 진연(診筵)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

“프랑스국의 편지는 그 글뜻을 보건데 심히 거만하니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렇게 하도록 권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약상(藥相)⁸⁾ 권 돈인(權敦仁)이 대답하기를 :

“성상의 말씀이 지극히 마땅하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에 내응(內應)하는 자가 없었다면 저들이 어찌 우리가 서양사람을 죽인 줄을 알겠나

8) 약상(藥相) : 진연(診筵)의 도제조(都提調)를 가리킴.

이까? 프랑스 배가 온 것은 반드시 권유와 유인을 받은 것이니, 모두가 내부에서 일어난 변고(變故)일 것입니다.”고 했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

“그 글의 내용과 봉투를 보건데 서양사람의 제도(制度)같도다” 하셨다.

권 돈인이 대답하시기를 :

“그 편지의 글은 중국의 문체(文體)와 같나이다. 그 글속에 살해를 당한데 대한 보복을 한다 하였고 또 다음에는 살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타국에 건너와서 사교를 펴는 서양사람을 누가 죽이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

“글 가운데 내년에 온다고 하였으니, 내년 봄은 소란하겠구나.” 하셨다.

권 돈인이 대답하시기를 :

“내년 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도 소란하여 민간에서는 사설이 파다하니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오늘이라도 국내외에 반포하여 그 의혹을 깨치도록 하시고, 또 빨리 김 대건을 처단하시면 인심이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

“마땅히 처분하리라.” 하셨다.

6. 병진년(1856), 이 신규(李身逵)가 징을 쳐 원통함을 호소(呼訴)한 일 <신유년(1801) 사교(邪教)의 괴수 이승훈(李承薰)의 아들로서 기해년(1839)의 사교(邪教) 옥사(獄事) 때에 이기원(李起元)이란 이름으로 체포되었었다가, 지금(1856)에 와서 명금(鳴金:바라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하였으며, 무진년(1868)에 이르러 마침내 사학 때문에 권철신(權哲身)의 손자 권복(權復)과 함께 처형 당하였음.>

“신의 아버지 승훈(承薰)은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남달라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대대로 내려오며 벼슬을 하여 군수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의 삶이나 죽음이 원통하거나 그렇지 않음은 조정에서 마땅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아버지가 계묘년(1783)에 신의 할아버지 동욱(東郁)이 동지사·서장관(冬至使·書狀官)으로 가는 길에 따라가서 객관(客館)

에 머물 때에 상사(上使: 몰정사(正使))와 부사와 함께 서양관(西洋館)에 가 보았다 합니다. 서양사람이 그들에게 차과 차[茶]와 음식으로 접대하였는데 그 때에는 아직 금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사(上使)와 부사가 아버지와 함께 의심치 아니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을사년(1785)에 비로소 금지령이 내려으므로 아버지가 곧 친척들을 모아 놓고 그 서적을 불사르고 배척하는 시(詩)와 글을 지었다 합니다. 신해년(1791)에 이르러 홍 희운(洪羲運)·이 기경(李基慶) 두 사람이 처음 동료 사이의 시기(猜忌)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악의(惡意)로 모함하는 계책을 세워 서로 화응(和應)하여, 신의 아버지가 고의로 서적을 구입하여 왔다고 상부(相府: 객상(宰相))에 투서하여 성상에게까지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교가 내려는데 ‘이 승훈을 관직에 둘 수 없으니, 해당 관청에서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 사실을 규명하여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술서(供辭)를 성상께 올린 후에 성상께서 결재(決裁)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이 뚜렷하였고, 그 속에서 성상께서는 ‘이미 불살라버린 서적의 일은 묵은 일을 들추어 낸 것이니, 그 사정과 현실이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마땅히 법률로 규정한다면 금령(禁令)을 내리기 전과 내린 후의 구별이 있어야 할 것이니, 다시 물어볼 여지가 없다.’ 하였고, 또 ‘이 기경(李基慶)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믿겠는가’ 하였고, 또 ‘무릇 그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수백 년이 되어서 지봉유설(芝峯類說)에도 비평(批評)하는 말이 있었으며, 홍문관(弘文館)의 장서각(藏書閣)에도 또한 이 책이 있고, 근래에 서울과 지방에 유포되고 있으니 그 책임을 승훈(承薰)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묘조(正廟朝, 정조(正祖)) 신해년(1791) 11월 6일에 처분이 내린 것이고, 그 달 11일에 헌납(獻納) 송 익효(宋翼孝)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서학(西學)의 모든 책들은 서양사람이 세 사신에게 고루 전하였고, 세 사신이 모두 받아 왔으나, 이 책의 이름도 모두 중국에 유행하는 서적 목록 가운데 이미 있으므로, 그 일행이 처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모함하는 자들은 그들의 계략(計略)이 다 드러났으므로 꼬리를 감추었다가, 신유년(1801) 봄의 옥사 때에 홍 희운과 이 기경 두 사람만이 다시 기회를 틈타서 전날의 모함과 묵은 감정을 다시 일으켜 먼저 날카로운 칼날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상의 은혜를 가리고 드디어 간계(姦計)를 이

루었던 것이니, 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사무치는 원혼(冤魂)이 되고 말았사옵습니다. 대저 신해년(1791) 이후 신의 아버지의 사소한 흠도 취조(取調)하는 마당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관직도 밝은 조정에서 구애됨이 없었고, 옥사의 사실도 성상의 결재 가운데 밝혀져서 다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극형의 선고가 내렸으니, 죄명은 수백 년 동안 통행되었고, 이미 불사른 책으로 인하여 망측(罔測)한 죄과(罪科)로 지목되었습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는 듯하고, 태양은 여전히 비치는 듯하나, 성상의 말씀으로도 구원해 주지 못하시고 시행(施行)됨이 없었습니다. 저들 홍(洪)·이(李) 두 사람의 앞뒤의 말이 판에 박은 듯하여, 모함함이 신해년(1791)에 시작하여 신유년(1801)에 이루어졌으니, 고금(古今)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사오리까? 신은 자신이 죽을 죄를 범하면서 성상께 호소하오니, 혹시라도 우리 성상(聖上)의 하늘같이신 은택(恩澤)을 입어서 이 억울함을 씻어 주시와 지하에 있는 영혼을 두 번 살리는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7. 4월 6일〔1857년〕 유학(幼學)⁹⁾ 정 규승(鄭圭升)· 이 도면(李道勉)· 이 수국(李守國) 등이 태학에 보내는 통문

“없드려 아뢰옵건데, 그릇됨과 올바른의 분별은 천리(天理)의 본연(本然)에서 나오고, 옳고 그름의 공변됨은 인심(人心)의 공통됨에 있습니다. 진실로 바르고 옳다면, 한 사람의 사사로움으로 무고하고 훼손(毀損)할 수 없으며 그릇되고 옳지 않다면, 한 사람의 친함으로 드러내어 변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신규(李身遠)가 태연히 호소함은 주상을 기망(欺罔)하는 것이니, 실로 이보다 더 큰 세상의 변괴가 없을 것입니다. 슬프다! 이 승훈은 곧 신유년(1801)에 처형을 당한 사적들의 괴수입니다. 이런 자를 설원(雪冤)시켜 준다면 어떤 도적인들 설원시키지 못하오리까? 옛부터의 금법(禁法)이 한 번에 무너져 그 잔당이 사방에서 일어난다면 이 세상 교화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짧은 학식과 얇은 소견으로 아는 바가 없아오나, 방에 들어 앉아서도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여러 군자께서는 자세히 살펴주소서. 무

9) 유학(幼學):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

뜻 이 승훈이 사들인 사교의 서적은 계묘(1783)·갑진(1784) 연간의 일인데 신해년(1791) 심문할 때에 승훈이 자백하여 말하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라’ 하였고, 또 ‘천척들을 모아 놓고 다 불살랐다’ 하였고 또 ‘글을 지어 이단을 배척하였다’ 하였음에도 지금 이 신규가 신해년에 밝혀졌다고 끌어내는 것이 첫째도 기망(欺罔)이요, 둘째도 기망인 것입니다. 대저 서양 서적이 온 것이 이미 오래 되어, 이 가환(李家煥)·이 벽(李堯)·권 일신(權日身)들이 제일 먼저 침혹(沈惑)되었습니다. 이 승훈은 곧 이 가환의 생질입니다. 그 외삼촌(外三寸)이 지휘하고 생질인 이 승훈이 서적을 구입한 외에 견진(堅振)·영세(領洗)의 일과 설법(說法)·점례(占禮)의 조목을 일일이 자세하게 받아 와서, 그 술법(術法)이 비로소 크게 갖추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양사람이 이들에게 구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또 말하기를 ‘돌아온 후에 책을 자주 뒤져 보아서 점점 전파되었다’ 하였는데, 찌임에 빠지면 세상에서 지목당하는 것을 알고서 화가 두려워 서적을 불사른 것은 아비가 펄박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과연 그의 진정에서 우려난 것이겠습니까? 이른바 이단을 배척한 글이라는 것도 횡설수설한 것으로 지적할 만한 것이 못 되니, 저들이 진술한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묘조(正廟朝)께서 어지신 덕으로 그들의 지나간 죄를 용서하시어 새롭게 살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저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은혜에 보답하고 가르침을 본받아야 할 터인데, 저들은 끝까지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회(泮會)에서 설법한 증거가 뚜렷하고, 서양의 사적을 불러들인 음모와, 유 관검(柳觀儉)이 문초당한 것과, 성묘(聖廟: 공자 등 성현을 모신 문묘)에 참배 아니 한 일과, 선비를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한 일이 모두 저들이 말하는 서적을 불살은 후의 일이며, 최인길(崔仁吉)과 윤 유일(尹有一)이 문초당한 것과, 이 승훈이 예산(禮山)에 귀양간 일이 모두 저들이 이른바 밝혀졌다는 것 이후의 일입니다. 하물며 황 사영(黃嗣永)이 백서에서 말하기를 ‘이 승훈은 겉으로는 비록 천주교를 해치는 것같으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신앙이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저희들 파당의 속마음을 아는 자의 말로서 어찌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토벌이 이미 시행되었고, 국론(國論)이 모두 정하여졌으니, 이 신규(李身遶)로서는 마땅히 조용하게 엎드려서 자속하면서 사교도들을 원수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신규는 기

해년(1839) 포도청의 신문서(訊問書) 가운데의 이 기원(李起元)이란 이름
 임이 밝혀졌습니다. 아버가 전하고 자식이 받아서 집안의 계책을 삼았고,
 삼촌과 조카가 체포되어도 한길로만 나가며, 유(유 방제(劉方濟))·범(범세
 형(范世亨))·나(나(羅)모방)·정(정(鄭)샤스팡) 들을 동서로 따라다녔고, 신
 부니 교주니 하는 사호(邪號)까지 이미 확립하였습니다. 삼년이나 죄수로
 갇혀 있다가 나중에 놓여 나와서 생명을 보존한 것만도 다행이어서 이제
 감히 팔을 뽑내고 혀를 놀려서 하늘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가
 일찌기 선조(先朝 : 정조(正祖)를 가리킴)에게 기만하였던 것을 가지고 다시 성세(聖世 :
 현재의 임금 순조)의 밝은 하늘 아래 내놓아 이토록 날뛰고 있습니다. 가만
 히 생각해 보니 우(禹)임금이 구정(九鼎)¹⁰을 이미 부어 만들어 놓자 요
 망한 도깨비가 형상(形像)을 감추었으며, 진시황(秦始皇)의 거울(秦鏡)
 이 비록 걸려 있어도 간사한 쓸개가 비쳤다 하니 또 어찌 잠복하였던 무
 리들이 계속 뻘어나갈 염려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바라옵건데
 여러 군자께서는 깊은 염려와 영구한 계획으로서 바른말로 엄격히 성토하
 셔, 저희들의 미미한 말이나마 버리지 말아주시면 크게 다행이겠습니다.”

8. 진사 이 은진(李恩鎭)·이 덕진(李憲鎭) 등이 태 학에 보내는 단자(單子) (1857년 4 월 6일 4)

“엎드려 아뢰옵건데, 저희들은 죄인 이 신구(李身逵)가 주상을 기망하
 고 저희들의 죽은 할아버지를 심히 무고한데 대하여 한 마디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디어 바라옵건데, 여러 군자께서는 잘 살펴 주시옵
 소서. 그가 진술한 가운데 신유년(1801) 봄 옥사 때에 홍(홍 희운(洪羲運))
 ·이(이 기경(李基慶)) 두 사람이 기회를 틈타서 무고를 하였다고 한 것이
 곧 그 글 전체의 결론이므로 먼저 이것부터 변론하겠습니다. 무릇 사교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옥사인데, 그 죄가 무엇을 범하였는지를 규명도
 아니 하고 두 사람의 말만을 따라서 국문(鞫問)하고 처형하였다 하니 이
 런 일이 어찌 고금천하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진술 속에

10) 구정(九鼎) : 중국(中國)의 우(禹)임금이 구주(九州)에서 거둬 들인 금(金)으로 만든 솥
 으로 하(夏)·은(殷) 이래 천자의 보물로 보존되었음.

사서를 서양사람이 준 것이라 하며, 상사(上使)와 부사(副使)가 함께 받아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서인 줄을 미리 알았다면 어찌하여 받았으며 그 영세의 예법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교주가 된 것을 세상이 지목하게 되었고, 그의 할아버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서적을 불살으는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그 서적을 무심히 받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사(正使 : 상사(上使)와 같음) 황 인점(黃仁點)과 부사 유의양(柳義養)이 막지 못하고 행장(行裝)에 넣어서 가져왔으므로 주상에게 까지 그의 죄가 상주(上奏)되었는데 그 때에 함께 받아 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전가(轉嫁)시키려는 것은 그 계책이 또한 허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미년(1787) 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강습한 사실은 신해년(1791) 신문할 때에 저절로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료들이 금지할 것을 실로 여러번 충고하였는데도 마침내 들어서 회개하지 않고 드디어 절교까지 하게 되었으니, 저들의 진술 가운데 시기하고 모함한다 하였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또한 임자년(1792) 봄에 새로 평택(平澤)에 부임하여 성묘(聖廟)에 참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고을 선비 권 위(權瑋) 등 여러 사람이 통문(通文)을 올려 성토하였고, 주상의 특명으로 사실을 규명하여 필경에는 주상의 엄중한 교시로 귀양가는데까지 이르렀는데도, 저들의 진술 가운데 그 아버의 벼슬에 흠이 없다 하였다니 진실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그 때에 권 위(權瑋)는 원통하게 매맞아 죽었는데, 기해년(1839)에 재상(宰相)들이 주상께 상주하여 권 위(權瑋)에게 벼슬을 주는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엄중하게 사교를 토벌하는 처분이 이러하였습니다. 을묘년(1795)에 포도청에서 최 인길(崔仁吉)과 윤 유일(尹有一)의 문초가 있었고 신유년(1801)에는 포도청에서 또 유 관검(柳觀儉)의 문초가 있었는데, 이 승훈과 더불어 서양사람을 맞으려는 계획을 하였다 하였는데, 그 서양사람이 바로 처형당한 주문모(周文謨)입니다. 서양사람을 맞아 왔다는 죄는 추조(秋曹 : 형조(刑曹)의 별칭)의 문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 사영의 백서는 곧 이 승훈의 무리가 각각 돈을 내어서 큰 군함들을 오도록 청한 역적의 모의이며, 그 글 가운데 이 승훈이 겉으로는 비록 서교(西教)를 해치는 척하나 마음 속으로는 끊이지 않는 신앙이 있다고 한 것은 곧 그가 파당이라는 명백한 증언으로서 나라의 문서 가운데도 보존되어 있으니, 저들이 진술한 가운데 그 아버의 작은 허물도 들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저 이 승훈이란 자는 실로 사학을 선창(先倡)한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규가 속이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의 뜻이 장차 사건을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사학을 성토하지 않으려면 모르려니와 진실로 성토하려고 한다면 저 이 승훈을 버려두고 장차 누구를 성토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선조가 가장 먼저 사학을 물리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도(正道)를 호위한 공로가 있으며 스스로 없어질 수 없는 공변된 의논을 가졌습니다. 저 이 신규가 감히 대담하게도 도리어 모함함이 이토록 무엄(無嚴)하니 자손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우며,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슬프다! 저 이 신규는 또한 기해년(1839) 옥중에서 삼년 동안 죄수였으므로 마땅히 사학을 원수같이 여겨서 끊어 버려야 할 터인데, 처음에는 범(범세형)·나(나모방) 등 여러 놈들을 쫓아 다니고 또 징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당초에 사교를 배척하였다는 말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교와 정도가 사라지고 자라나는데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 다만 저희들 한 집안의 사사로움만이 아니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데 여러 군자께서는 천하의 모범을 세우는 자리(首善之地: 섭판)에 계시므로 본래 그릇됨을 배척하는 변론에 밝으시니,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살피셔서 더욱 정도를 북돋는 방법에 힘써 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9. 해국도지(海國圖志)

동광(道光) 25년(청(淸)나라 선종(宣宗) 25년, 1845) 광동총독(廣東總督)이 상주(上奏)하기를 :

“프랑스국 오랑캐가 천주교는 사람에게 착한 것을 권하는 것이고, 사교가 아니니, 중국인들에게 천주교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위에 아뢰어 인준되었다.

바닷가에 천주당을 세워서 중국인을 입교시키는 것은 들어주었으나 오직 부녀자를 간사하게 유인하는 것과 병자의 눈알을 뽑아가는 것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서양의 천주교는 조사하여도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천주교는 처음에 입교하면 환약(丸藥)을 받아 먹게 하는 것과 세 차례 돈을 받는 일이 있으

며, 조상의 신주(神主)를 쓸어 없애는 일이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서 자는 일이 있고, 병들어 죽을 때에 본사(本師 : 천주교의 천주교사)가 와서 눈알을 뽑아가는 일이 있었다. 돈은 매번 130 량씩 받아서 장사의 밀천을 삼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받는다. 무릇 세 차례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다시 받지 않았다. 전번에 서울의 어떤 의원(醫員)이 세모(歲暮)에 빈곤하여서 천주교에 들어가면 가난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교이므로 입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먼저 설사약을 다려서 처자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

“내가 돌아와서 만일 흥미하거든 급히 이 약을 내 입에다 부어 넣어라” 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당에 가니 서양사람이 작은 환약을 주어서 먹게 하고 100여 량의 돈을 주므로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손으로 신주를 던지며 입으로는 말을 더듬거리서, 처자가 급히 전에 말한 대로 약을 입에 흘려넣으니, 조금 후에 심하게 설사를 하고 깨어났다. 그 요강 속을 보니 꿈틀거리는 물건이 있으므로 씻어서 본즉 한 치만한 여자의 형상인데 미목(眉目)이 살아 있는 것같았다. 이에 덮어 놓으니 약병 속이 환하여졌는데 교사(敎師 : 서양 천 교사)가 손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찾아갔다. 의원이 말하기를 :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 나에게 반드시 알려라.”
하니 이에 교사들이 서로 돌려가며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천주성모(天主聖母)이다. 입교한 지가 차차 오래 되면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죽을 때까지 믿고 다시 마음이 변하지 못하게 한다.”

하고는 주고 가버렸다.

또한 입교한 사람이 병들어 죽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교사가 오면 처자들은 모두 방문 밖에 꿇어 앉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오래지 않아 병자가 죽으면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교사는 흰 보자기로 시체의 머리를 싸매어 놓고 풀어보지 못하게 하며, 대개 눈알은 이미 없어졌다. 거짓으로 입교한 자가 있어서 그 술법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거짓 병들어 며칠 동안 먹지 아니하고, 그 교사에게 오라고 하였더니, 그 교사가 과연 작은 칼을 들고 앞에 와서 눈알을 뽑으려 하므로 거짓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칼을 빼앗고 주먹으로 치니 허둥지둥 도망갔다.

듣는데, 오랑캐들이 사는 거리에서는 중국납[鉛] 100 근을 끊어서 은전(銀錢) 8량을 뽑아내고, 그 납은 93근은 팔아서 원가(原價)로 돌려준다고 한다. 그 은은 반드시 중국사람의 눈알을 넣어야 쓸 수 있고, 서양사람의 눈알로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양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눈알을 뽑는 일이 없고, 오직 중국사람일 경우에만 뽑는다고 한다. 또한 아편도 오랑캐에게는 쓰이지 않고 중국사람에게만 쓰는 물건이라고 한다.

『해국도지』(海國圖志)라는 것은道光(道光) 임인년간(壬寅年間, 1842)에 내각(內閣) 중서(中書: 관직명)인 소양(邵陽)과 위원(魏源) 두 사람이 그 때에 서양 오랑캐 영국(英吉利)이 광둥(廣東)을 소란케 하므로 이 글을 지음.

10. 발문(跋文)

이 벽위편은 지난 날, 나의 황고조(皇高祖: 고조부 (高祖父))인 척암공(瘠菴公: 이 기경)과 홍 노암공(洪魯菴公: 홍 낙안 (洪樂安))·강 삼명공(姜三溟公: 강 준흠 (姜浚欽))·목 이재공(睦頤齋公: 목 태석 (睦台錫))이 사교를 배척하던 때의 역사이다. 벽위(關衛)라고 하는 것은 사교를 물리치고 정도를 호위한다는 뜻이다. 그 때에 사학이 크게 어지럽고 괴수가 높은 관직에 있었으므로, 동료들이 혹은 면대하여 깨우치고, 혹은 편지로 공격하며, 상소로 배척하여 그 회개하기를 기다렸으나 적반하장이었다. 그 동안에 채상(蔡相: 채 제공 (蔡濟恭))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사학을 배척하던 제공(諸公)들도 배척되어 쫓겨나게 되니, 혹은 귀양도 가고 관직도 삭탈(削奪)되었다. 황고조(皇高祖)께서 북관(北關: 함경도)에서 돌아가실 뻔하였고, 무고를 당함이 더욱 심하니, 그 때의 공론(公論)이 원통하게 여겼다. 오래지 않아서 사학의 괴수는 정도가 아니라 하여 처형되었고, 채상(蔡相)도 사학을 옹호하였다 하여 사후에 처형[追律] 되었으니, 그 때의 사실이 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황고조께서 스스로 편찬한 것은 백 대(百代)의 공론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 후 채상(蔡相)을 위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자들이 항상 떠들어대었다. 나의 증조(曾祖)와 조부와 백부와 부친이 그 뒤의 일을 계속하여 편찬하였고, 중형이 또한 누락된 것을 보충하였으니 모두 사실의 기록이다. 무릇 바르지 못한 것이 올바른 것을 이길 수 없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다. 혹시 이와 반대로 군자가 비록 한 때

에 허물하게 되었더라도, 마침내는 반드시 천 년 후에라도 억울함을 풀 수 없음을 이 벽위편이 아니면 무엇이 알려주랴? 그러나 책상에 먼지가 쌓이도록 세월이 흘러가서 잔글씨의 원고는 종이가 마멸되고 먹글씨가 지워진 것이 반을 넘었다. 오래 되어 유실된다면 황고조의 사학을 물리치고 정도를 높이던 일이 인물(湮沒)되어 볼 수 없게 되어 후세 사람들이 혹시 시비에 현혹되어 떠들어떨까 두려워, 중형과 의논해서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하고자 하였다. 뒷날 군자들 중에 만약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있다면 옳지 못함과 올바름이 자연 판단될 것이다. 출판을 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옛날 원고를 베끼는데 황고조 이하 4대의 손때가 아직도 새로운 듯하니 눈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쓰노라.

불초(不肖) 현손(玄孫)

만채(晩采)는 삼가 발문을 쓰다.